

“전공·특기 살려 주민 안전 책임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학생의소대 주민에 소방 서비스 제공

제주에서 최초로 ‘대학생 의용소방대’가 발대했다.
 제주소방서는 지난 25일 제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주한라대학교 관계자, 의용소방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소방서 제주한라대학교 대학생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내에서 대학생들만이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대식은 지난달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제주한라대학교 총장과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개최한 뒤 설치 승인을 거쳐 20명의 대원을 선발해 진행하게 됐다.



지난 25일 제주소방서에서 제주 최초의 ‘대학생 의용소방대’인 제주한라대학교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대학생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청년층 중심인 혁신적 소방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 안전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제주도의회 추석 맞이 재래시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해 정민규·강연호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동문재래시장 등을 방문해 명절 물가 동향과 수급상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도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구입했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도민께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주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향국 도의원 청년정책교류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향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지난 24일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과 제주지역의 청년정책 및 청년기금 추진 현황 등에 관한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에서는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계획한 청년정책연구의 수행과 제주 청년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제주시농축협운영협 시장 초청 간담회



제주시지역농축협운영협의회(의장 김군진)와 농업중앙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고석찬)는 지난 23일 제주축협 아라점에서 안동우 제주시장 및 제주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발굴과 지자체의 정책 반영 등을 위한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동정

화북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참석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28일 한일공업사에서 열리는 화북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체육 정책 토론회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체육이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화상회의

◇변대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28일 25일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전국 지역본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태풍 피해 복구 현황 및 추석 명절 이후 영농철 영농지원 실시 계획을 보고.

김용범 도의원 전국 시도 ‘수석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선임된 4명의 부회장 중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전국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차원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라면서 “의정경험을 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와 소통하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사서에문인화회대회 수상자 발표

제20회 전국 추사서에문인화회대회(공모전)에서 이광훈(광주)씨가 영예의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이사장 강창화) 주최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우편접수와 현장접수로 진행됐으며, 이번 대회에서 한글부문 대상은 채종현(인천), 한문부문 대상 이원철(제주시), 문인화부문 대상 김영숙(제주시), 서각부문 대상 홍인선(제주시)씨가 차지했다.

이광훈씨 채종현씨 이원철씨
 김영숙씨 홍인선씨
 이 광훈, 채종현, 이원철, 김영숙, 홍인선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글부문 대상은 채종현(인천), 한문부문 대상 이원철(제주시), 문인화부문 대상 김영숙(제주시), 서각부문 대상 홍인선(제주시)씨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서예인들이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서각 부문에서 총350점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팔색조 구조 후 치료 마치고 자연 방사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는 지난 17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 건물 유리창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어 구조된 팔색조가 치료를 마치고 지난 26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27일 밝혔다.
 이 팔색조는 여름철새로 번식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부상을 입었다. 구조 당시 강한 충돌에 의한 두부손상과 왼쪽 안구 출혈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상태였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는 ‘숲의 요정’으로 불린다. 서식지 산림파괴 등



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세계적으로 2500~1만여 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농협부녀회장연합회 성금 기탁

제주시농협부녀회장연합회(회장 양정아)는 최근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양정아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과 힘을 모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다문화가족에 송편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25일 적십자사 나눔회에서 제주시지구협의회(회장 신창덕)와 서귀포시지구협의회(회장 김육심)의 주관으로 ‘추석맞이 다문화가족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엔 봉사원과 다문화가족 등이 참여해 다문화가족들에게 송편 및 나눔을 알리려는 등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한가위의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보청기 가격 | 차상위계층 | 일반 |
|-------------------------|------------------------------|--|
|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포함) 추가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증거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목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分辨力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分辨力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分辨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자 고도 말소리의分辨力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分辨力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分辨力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